

대면학기를 맞아 양캠퍼스
총학생회를 만나봤다



환경 개선 진행중…“타 대학 대비 나은 편”

대학주보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박사 172명, 석사 418명, 학사 2,033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사진 촬영을 위한 양 캠퍼스 졸업주간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강다은 기자 ekdms2002@khu.ac.kr

2년 만의 ‘대면’ 개강…대면+혼합수업 91%

강다은 기자 ekdms2002@khu.ac.kr

코로나19로 닫혔던 강의실 문이 2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학사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2학년도 1학기까지 2년 반 가량 수업 운영에 비대면 원칙을 세웠다.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배정 인원 30명 이하의 강의에서 대면 수업을 허용한 바 있지만, 배정 인원과 무관하게 대면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학기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2학기부터 우리학교는 ‘하이브리드형(혼합형)’ 수업 방식을 도입한다. 혼합형 수업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혼합된 형식을 말한다. 우리학교는 배정 인원에 따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 혼합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지난 1학기 학사지원팀, 학생지원센터, 총학생회가 학사운영TF 회의를 통해 혼합형 수업도 허용하게 됐다”며 “앞

으로 교강사와 학생 간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혼합수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반드시 비대면 수업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정 인원이 60명 초과인 수업의 경우 시험 주간(2주)을 제외한 대면 수업 8주를 총족한다면, 나머지 5~6주는 교수의 재량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대다수 강의는 대면 수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강의 계획서 작성 기준으로 2022학년도 2학기 대면 수업 비율은 56%, 혼합형 수업이 35%에 달했다. 지난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의 비율이 17%, 혼합형 수업이 29%였던 데 비하면, 대면 수업의 비율이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달 4일 ‘2022 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절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

하는 ‘정상 수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교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변 지역에 따라 주후 수업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시점으로는 지난 6월에 안내된 2학기 수업방식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수업방식 변화에 따라 시험 일정도 변한다. 코로나 유행 기간 우리학교는 시험기간을 시험 유형별, 캠퍼스별로 분리해 2주에 걸쳐 진행했다.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의 비대면·대면 시험 준비, 진행상의 편의성 보장, e-campus 접속자 몰림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그동안 시험기간을 2주간 시행했다”며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기말 시험이 모두 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선 문제가 없어져 코로나 이전처럼 시험기간을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적평가 방식도 다시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우리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절대

평가 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상대평가가 재개되면서 학점표준화 제도(B+이상 40% 이내)도 시행될 예정이다.

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된 대면 수업이 2학기부터 재개된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령

면 〈편집장〉
김경민(국제학 2017)
〈뉴스팀장〉
이동건(행정학 2021)
〈미디어팀장〉
천민주(사회학 2020)

명 〈편집장〉
이동건(행정학 2021)
〈뉴스팀장〉
강다은(호텔경영학 2020)
〈미디어팀장〉
강나윤(경영학 2020)

설국버스 운행 횟수 절반으로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오는 2학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양 캠퍼스(양캠)를 오가는 셔틀버스인 ‘설국버스’가 감축 운행돼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셔틀버스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 서울에서 국제, 국제에서 서울로 매일 각 8회씩 총 16회 양캠을 오갔다.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는 각 4회씩 총 8회 운행될 예정이다.

총무팀에 따르면, 셔틀버스 감차는 지난 2019년 우리학교 직영 버스의 유상운송 허가가 종료되면서 결정된 내용이다. 총무팀은 “학교 소유로 운행하던 셔틀버스의 유상운송 허가가 2019년에 종료됐다”며 “당시 구성한 TF(Task Force)팀에서 셔틀버스의 외부 위탁 운영과 2021년까지 점진적 운행 횟수 감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셔틀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주거환경학과를 다전공 중인 김가영(환경조경 디자인학 2018)씨는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셔틀버스의 배차 횟수와 간격이 변경돼 원하는 전공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며 “수업 시간을 고려해 셔틀버스를 배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총무팀은 “증차에 대한 학생의 요청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대학 본부, 교수, 노동조합과 총학생회 합의체의 결과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학기에 운영될 서울캠 행 셔틀버스는 사색의 광장에서 7시 30분, 10시, 14시, 15시 30분에 출발하며, 국제캠퍼스 행 셔틀버스는 온실 앞에서 12시, 13시, 16시 30분, 18시에 출발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